

실내계획이론으로서의 유형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ypological Approach for Interior Design Planning

한경희* / Han, Kyoung-Hee

이선민** / Lee, Seon-Min

Abstract

The past and present time are consistent thinking process system which composed of single concept, not separated concept. It's common concept for interior designer to how to realize the thinking process system in actual present day. So this paper was focused on purpose of establishing for procedural process theory by approaching typological process system in interior design process. Interior design being composed of typological thinking process system, has been headed as a critical issue to how to transplant well between the design and typological objects. Also, we have to be needed to know for the process of visual expression and verbal ability to be able to extract the designer's elements from it. Through the process of visual transformation and analysis, we have to extract concepts with united design objects. From these process, it should be followed adequate adjudgment on the extracted fragments's assembly and dissociation methods through physical limitation of elements, functionality and feasibility's measurements. Therefore, from the morphological designed results reflected to typological concepts, finished material, detail and texture, we should be able to take the integrated thinking process system. Lastly, interior designer should be able to check whether it was best choice from the consistent design feedback process, to ask whether it contains the conceptual design process and new typological objects without non-conformity between past and present days in interior space. Now, we should be asked for development of practical design process to be able to realize above assumptions called "Recover to Traditionalism", "Development and Succeeding of Cultural Value System". Additionally, we have to continue to develop for our true meaning of interior design process, not repetition of past's imitation.

키워드 : 유형학, 계획 이론, 방법론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실내디자인 상에 방법론은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초기에 설정하는 개념이 디자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실내디자인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어떤 분야든지 발전에 따른 부정

적 산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도 무분별한 맹목적 모방이나 국적 없는 디자인, 즉흥적 감각에 의하여 도입된 전통적 디자인 요소, 그리고 잘못된 개념적 사고의 틀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산재해 있다. 디자인에 정답은 있을 수 없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디자이너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소명 의식으로 디자인 행위를 한다면 보다 깊이 있고 잘 정제된 어진 결과물들을 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에서도 역사나 어떤 특정한 선례의 연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거나 특정 작품의 상대적인 장점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창조적 사고에 도움을 주게 되며,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서 전통적, 역사적 특성을 반영해 갈 때 실내디자인의 진정한 가치

* 정회원, 신홍대학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 정회원, 신홍대학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형학적 측면이 문화적 연속성을 재현하는 직접적 방법으로서 새로운 의미의 창조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관점에서 실내디자인 상에서 합리적 방법론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근거로한 실질적 적용의 구체적 과정의 연구는 추후에 진행시키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창조적 사고, 기술적인 해결능력, 그리고 경제성 및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행조건에 부합되고 어떤 종류의 디자인 문제나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점 해결방안의 모색을 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유형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유형학으로서 역사적 전개과정에 따른 개념과 가치체계의 변천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유형학적 배경이 갖는 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학적 사고의 특성을 살펴보고 계획이론으로서 유형학적 사고가 갖는 디자인 원리를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실내디자인 과정의 체계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준거로서의 유형학

2.1. 유형학(Typology)의 개념

유형(Type)이란 용어는 그리스어의 Typus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활자조판과 관계된 언어로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점점 비유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물의 형태적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型'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¹⁾ 유형(type), 유형학(typology)의 개념은 고전언어의 규범을 재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다수의 개적 형식(個的 形式)을 포섭하는 형식'이라는 의미와 '그 자신이 하나의 개체이고 구상적이면서 보편적인 것을 모범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건축의 문제해결에 당면한 건축가나 그 내부공간을 다루는 실내디자이너에게 있어서의 유형은 변형된 대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는 핵(nucleus), 근원적인 것들의 인식작용을 통한 사물의 구체적 수단(quetremere dequincy), 디자인 해결의 원천, 착상을 위한 최초의 출발점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알도 로시(Aldo Rossi)는 유형학(typology)을 특정 건축 형태를 만들어 내는 문화현상의 근간이 되는 일반적 디자인 체계로서 과거와 연결시키는 매개체이며, 대상의 본질에 대한 폭넓은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작품을 일반화시킴으로서 그것이 일정한 체계를 지닐 수

있게 해주는 최초의 불변성을 암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유형이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중성적 구조가 아니라 역사의 골격을 구성하며,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석적이고 실험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파엘 모네오는 유형이 예술적인 독자성(uniqueness; 건축작품이 갖는 예술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상황하에서 유형이 갖는 고유한 성질)과 기술적인 반복성(repeatability; 건축자체의 논리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형태 이전에 존재하며 건축형태를 구성하는 논리적 법칙)으로 규정되어 동일한 구조 속에서 특징지어 지는 대상의 한 그룹을 묘사하는 개념이며 건축가가 작품을 시작하는 창조적 사고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와 특유의 형태 및 논리적 구조를 지니는 이중적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는 유형이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복제 가능한 사물의 이미지라기 보다는 모델을 위한 하나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요소(element)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7. 계획각론적 성격을 띠는 분류수단으로서 작품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 건축물의 형태, 기능, 공간론적 입장으로 분류하여 요소와 부분 및 건축물 전체와의 관계를 통해 건축물을 해석하는 입장

8. 형태구조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사물을 묘사하는 개념으로서 특유의 형태 및 논리를 갖는 이중적 의미; 형태 도출 이전에 건축 형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건축디자인에 응용될 수 있는 방법론

2.2. 유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가치체계

유형은 물론 역사적 속성을 제공하지만 매우 오래 전에 확립되어 그 기원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초기의 원동력이자 근본적 원형이며 처음엔 건축적인 유형을 강요했던 인간적 활동의 산물이다.²⁾ 근대 이전의 유형개념은 '대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원리로 전통과 역사에 의하여 전개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서 과거의 절대적 미와 모방이론이 아닌 설계기준을 제공하는 원리로서 작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추상적이며 기하학적 특성을 띠게 되고 모든 장식적 요소가 배제되어 연출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양식의 분류와 모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20세기 이후에는 인위적인 종(species)이나 평균적 모델의 개념이 아닌 전형(prototype)으로 변형됨으로서 유형에 관한 개념이 재정립되게 되었다. 현대의 유형개념은 산출을 위한 개념의 틀로서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형태적 연속성과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는 역사의 단편이 아닌 실제 디자인의 연결체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의 건물에서 규명되어지고 시각적으로 나타내어지는 유형은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서 현재에 이르기

1) Webster's Third International Dictionary, G and C Merriam Co, 1966, p.1476

2) J.M. 말러, F.보드바르카, Interior Dimension, 박영순, 이현수 역, 디자인 하우스, 1996, p.417

<표 1> 건축에 있어서 유형개념의 변천과정³⁾

시기	인물	기본개념
18 C	Laugier	'원시의 움집(Primitive Hut) : 건축의 기원 추구에 따른 개념
	Biondel	'장르'의 개념: Buffon의 동물 분류를 참조하여 건물종류의 구분에 사용
	Bouleee, Ledoux	형태의 비유적 은유적 추상화로 의미물 제시함
	Quency	'건축의 본질 및 내적 원리'로 제시
20C	Le Corbusier	'기계에서의 은유'로 유형개념을 적용
	기능주의자	'재생산의 도구'로서 모델의 성격의 의미
현대	G. Aragon	'형태의 내적 구조'
	S. Muratori	'도시의 부분이 되는 형태구조'
	E. Rogers	디자인의 '기본틀(framework)'로 간주
	A. Colquhoun	건축과 사회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의미
	Moneo	'건축산출의 이론적 틀'로 작용하는 형식구조

까지 부단히 재해석되어지고 사용되어져 왔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상의 특성뿐 만 아니라, 공간상의 특성까지도 답습되어지고, 과거의 인습적 요소들이 현대의 디자인과 병치적으로 사용되면서 디자인의 보체로서 장식적인 측면은 물론 내적 구조체의 형성원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실내디자인에서의 유형은 실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전달적 특성을 드러내며 문화적, 전통성의 계승이라는 중요한 역사성을 갖게 한다. 앨런 콜쿠혼은 "우리는 과거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유형학적 모델이 제공하는 형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상상력중 매우 활동적인 부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이다. 그것을 좋아하는 싫어하는 간에, 우리가 창조과정을 위한 개념의 통제력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해결안에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⁴⁾ 하고있다 이것의 의미는 유형학적 배경이 얼마만큼 우리와 밀접하고 깊은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며, 근원적인(primary) 형태는 형태 이상의 정신적인 경험의 기록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형은 역사속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공간구성의 유형, 공간간의 상관성 등에 따른 사회적 규범 등을 형태로 나타내야 하며, 건축공간과 형태가 관련되어지는 방식이 전통적인 도상의 개념에 기초한 재현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 표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2.3. 유형학적 사고의 특성

유형학적 사고(typological thinking)란 유형, 기본형들의 전개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체의 관계성을 문제로 하는 사고, 즉 아이디어의 세계뿐 만 아니라 현실 사물에 대해서도 백과사전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사고를 말한다.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하고, 기본형을 추출하는 작업은 그대로 다원적인 의미에서의 유

형화 방법으로 유용하다. 이것은 외관상으로 부질서하게 보이는 현실을 구조화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논리적인 관계성으로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실제적인 도구이기도 하다.⁵⁾ 그러면 여기서 유형학적 사고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성들을 조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유형학적 사고와 형태학적 과정에 의한 디자인의 개념과 접근방법 (테마로서의 건축, Architecture as Theme, 1982)은 다음과 같다.

<표 2> 유형학적 사고에 따른 디자인 접근방법

구분	개념	방법
변형의 테마(The theme of the transformation)	변형의 개념, 상태의 변화	형성+변형 +새로운 질서
집합의 테마 (The theme of the assemblage)	단편(fragment)들로 이루어진 전체	기준+모순 +완전한 형태 스스로 모순성 내포)
상호 공존의 테마 (The theme of transformation)	공간적인 연관성들의 일관된 연속	집적+종목 +끝없는 연속성
융합의 테마(The theme of the assimilation)	장소성에 대한 인공물의 적응	전통+기존의 역사 +끝없는 연속성
상상력의 테마(The theme of the imagination)	관념적 이미지의 현실화	전형의 축소 +관념의 직설적 현실화

둘째, 유형학적 형태 변용에 관련한 형태학적 사고(morphological thinking)과정은 두 단계로 구분되어진다.

1. 원형(archetype)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 ; 건축에는 시간이나 지역, 문화 등에 관계없이 항상 나타나는 몇몇 기본형들이 존재하며, 그 개념의 해석에 초점을 두고 주위환경에 대해 어떤 형태를 변형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과 상황들을 형태론적 변화 속에서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형태론적 구성으로부터 생성된다.

2. 상보적인 관점에서 사물들을 지각하는 것 ;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원형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이로부터 기본 유형의 관찰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학적 변형과정에 구조를 부여할 수 있을 때에만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변화 과정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건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연결시키면서 전체성을 추구하는 사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⁶⁾

셋째, 유형학적 사고의 기본 구조는 고전형태의 단순화와 환원 및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원형적 형태가 부여하는 질서의 감각과 규범적 속성을 재현하는 '유추의 건축(architecture of analogy)' 또는 '기억의 건축(architecture of memory)'을 지향한다. 따라서 건축의 해석과 접근은 역사적 유형, 재현, 인유, 사회적 적절성, 규약화, 맥락, 장소성, 언어적 의미체계, 전통적인 구성 체계와 추상화된 고전형태 언어 등과 같은 개념적 어휘를 바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수법은 '환원과 단순성', '침묵'을 바탕으로 역사적 원형의 의미를 내포하는 기하학적 형태의 강력한 의미회복에 바탕을 둔 것

3)정태용, 현대건축에서의 유형개념 및 유형학적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 p.50

4)J.M. 팔리, F.보트바르카, Interior Dimension, 박영순, 이현수 역, 디자인하우스, 1996, p.128

5)김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미건사, 1997, p.128

6)ibid, p.123

으로 고전건축의 전통에 바탕을 둔 규범은 지적인 작업에서 강력한 논리를 제공해 준다.

넷째, 유형화의 단계로서 유형의 어떤 체계의 골격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조직은 우리들로 하여금 디자인 체계 내에서 구성된 건축도면, 축척모형, 그리고 기타 묘사법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추상형상의 유형 사례들을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건설 세계의 건축적 어휘 요소들의 사례들(또는 그와 같은 요소들의 부분)을 나타냄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보는 우리의 묘사법에 관한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⁷⁾

다섯째, 유형학의 연구는 다른 것들과 그룹 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있다. 유형학의 개념은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물들을 기술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는데 유용하며, 어떤 유사성을 공유하는 다른 사물들과 같은 부류로 속하게 되는 사물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⁸⁾

여섯째, 유형은 선험적 개념이며 디자이너는 유형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창조적 행위란 알고 있거나 익숙한 요소들을 새로운 관계로 엮거나, 생소한 요소들을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엮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경우 역사적인 건축선례들의 도해적 분석을 통해 특정한 형태 구성 관계들이 시공을 초월한 디자인상의 불변수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이를 유추 또는 연상의 모델로 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⁹⁾

#유형학적 사고의 특성

7. 건축적 이론; 경험적, 선험적, 규범적, 유추적, 모방의 개념

ㄴ. 중심개념; 유형type, 연상association, 意味meaning, 재현representation, 圖像iconographic typology, 模寫mimesis, 引喻allusion, 분위기aura, 사회적 적절성social propriety, 맥락codification, 유추적 언어language analogy

ㄷ. 대지해석; 대비적 조화, 부지와 문화환경의 맥락해석

ㄹ. 역사, 맥락의 수용; 역사와의 연계성, 문화적 연속성, 규범의 재해석, 유형화 요소, 도시적 차원의 수용

ㅁ. 공간구성 및 평면형식; 중심적 공간구성, 공간의 중심성, 고전적 대칭구성

ㅂ. 형태 및 외관표현; 건축의 내적 자유성, 전통적 구성법, 대칭, 균제미, 추상화된 이미지, 도시적 형태¹⁰⁾

2.4. 계획이론으로서의 유형학

7) 윌리엄 미첼, *The Logic of Architecture*, 김경준, 남순우 공역, 도서출판 국제, 1993, p.106

8) 이희원,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의 특징과 현대건축에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 p.49

9) 구본덕, 건축디자인 방법론을 통해본 형태도출의 과정 및 관계기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p.59

10) 길성호, 패러다임에 의한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p.59

패러다임, 유형학, 원형, 일반해 등과 같은 요소들은 실무의 지적 분석 단계에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디자인 단계에서의 해결책 산출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며 선택 단계에서는 비교의 척도로 사용된다. 디자이너들은 종종 문제들을 상술하는 과정에서 명확성이 결여되는 상황과 직면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디자인의 원형이나 일반적인 해결 방안은 디자이너에게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과거에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¹¹⁾. 이와같이 유형학이 갖는 계획이론으로서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게 된다.¹²⁾

7. 모델로서의 건물유형(Building types as Models); 건물유형(building type)에 대한 특성별로 모델화시켜 이를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원시 시대 이래 유형학적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ㄴ. 구성적인 유형학(Organization Typologies); 공간의 배열과 기능적인 구성과 관련된 방식을 문제해결의 틀로 사용하는 것이며 형태구성의 기본법칙으로 사용된다.

ㄷ. 요소적인 유형(Elemental Type); 일반적인 디자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형(prototype)으로서 건물출입구의 처리문제, 저층부의 평면과 고층부와의 연결부, 또는 공간적인 느낌과 사적인 느낌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과 같은 것으로 도면작업, 서적 등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유형은 계획이론으로서 실내디자인에 사용되어야 하고 다각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디자이너의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¹³⁾

<분석적 시도>

7. 고고학적 연구나 건축적으로 측정 가능한 도면작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선례의 기술적 문서(평면, 단면, 입면)에 대한 연구.

ㄴ. 지역적 특성연구(기후, 재료, 지역특색)

ㄷ. 구조방법과 시공방법의 연구

ㄹ. 연구작품, 대상의 사회 문화적 측면의 뜯짜기(문화와 생활의 역사, 해당시기의 문명에 관한 연구와 다른 지역 및 다른 시기의 유사한 문화유물과의 비교)

ㅁ. 특정한 선례(기념비나 토속적인 작품)를 만드는 동안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무형적 가치들에 대한 관심, 모호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상징적인 것에 관한 조사연구

ㅂ.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개념

<종합적 시도>

ㄱ. 당대에 유사한 선례들과 오늘날의 유사한 건물들에 대한 선행연구의 해석

ㅂ. 연구된 시기와 오늘날 사이의 유사성 정도에 관한 가설적 제안

11) 구본덕, p.116

12) Peter G. Rowe, *Design Thinking*, MIT Press, 1987, pp.85-87

13) 안토니오 c. 안토니아데스, 건축시학, 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1994, pp.153-154

스. 오늘날의 요구에 관한 해결책에 부합하는 역사의 확장으로서 선행연구 채용의 타당성을 제안하는 이론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국면으로 접근방법을 갖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형은 그룹화된 디자인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는 근원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실내디자인을 위한 하나의 원리(scheme)로 규명하여 공통분모의 원리가 변형되지 않도록 피드백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둘째, 유형적 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상인식(shape recognition)과 해석(interpretation)의 두 단계로 전개하고, 하나 하나의 사례에 적절하게 명칭을 붙여 유형의 대상을 명명하여 그 성격을 확고히 하고, 부분형상인식(subshape recognition)의 과정으로서 부분을 적당히 선택 조합하여 형태유형의 사례로서 자격을 부여하여 그 내적 구조를 파악하여, 공간의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초적 틀을 마련한다.

셋째, 유형을 하나의 프로세스이자 오브제로 인식하여 고전주의적 전통에 바탕을 둔 재현적 의미체계를 기본으로 변형의 과정을 전개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변형의 과정은 유형의 재해석 단계로서 새로운 유형의 창출을 통한 현대적 사고체계의 반영이라는 실용적, 기능적 만족을 구가시킬수 있도록 한다.

넷째, 모든 전개과정들이 기능성, 실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제적 접근을 통하여 하나의 디자인 연속체로서 인식하고 디자인 사고체로서 파악하여, 개념적 과정으로만 결론지어지지 않도록 디자인 대상과 추출요소들의 접목의 과정이 구가될수 있도록 한다.

3. 유형학적 접근방식에 의한 실내디자인 과정

실증적 이론은 자연환경 및 구축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론의 역할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이것은 디자인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것과도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의 실체들은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완벽하며, 내적으로 조화되어 있고 외적으로 명확한 정의와 설명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증적 이론과 연구, 실무는 하나의 연속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¹⁴⁾ 따라서 디자인 과정이 비록 과학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진행과정이 과학적이거나 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묘사되고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절차적 이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논점에는 전체적인 디자인 과정의 특성, 인간 창조력의 특성, 분석, 종합, 평가과정의 특성이 포함된다.¹⁵⁾ 실내디자인 과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전체적 원리가 작용되며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진행시키고자 한다.

3.1. 개념정의 과정: 디자인 목표의 설정

(1) 1단계 - 설계대상의 분석과 파악

모든 설계대상의 시작은 양적이며 질적인 요구사항이 서술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아주 작은 공간일지라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조건은 수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자이너는 필수적인 행태체계의 정의와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능적 특징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지의 환경적 분석과 장소가 가지는 이미지의 서술도 병행되어야 하며 디자인하고자 하는 대상과 주제에 부합될 수 있는 조건 즉 용도, 목적, 기능, 수용성 등을 언어적으로 기술하고 감지하여야 하고 사용자에 대한 조사와 분석, 운영방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하고자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확한 성찰을 근본으로 하여 유형학적 대상으로 어떤 것을 도입 시킬까를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언급되어진 모든 내용들은 기록되어야 하며 디자이너는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창조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1단계는 유형적 대상의 추출을 위한 잠재적 기반의 확립이라는 전제적 조건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흔히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실내디자인의 시작단계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처음에 전개되는 과정은 주어진 공간의 특성에 맞는 유형학적 대상을 선택하여 결합시켜야 하는 디자인 목표에 대한 확립과 검토의 과정으로 먼저 공간 자체의 철저한 사전적 조사를 필요로 한다.

(2) 2단계 - 유형학적 사례의 선택과 설계대상과의 접목

어떤 유형학적 사례를 선택하여 전개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유형학적 사고체계의 과정 중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디자이너의 식견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유형학적 사례들에 대한 분류와 사용은 디자이너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결과(1단계의 수행과정)에 기초한다. 이것은 디자이너의 심상과 경험에 의한 선택이며 그 결과로서, 앞서 파악하였던 1단계의 분석 결과물들이 잘 부합되어질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그 결과가 상황적 구조에 잘 적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다음단계로의 진행에 많은 이점을 가져오게 된다. 선택된 유형적 대상은 해당지역의 평면이나 구성적 비밀, 매스 처리방법등에 관한 고고학적 측정결과, 학자들의 복원도 등을 추적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원형적이고 사실적인 선례를 언어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복원시키고 그 전반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국부적인 역사의 원형들과 보편적인 원형, 가까운 시간대와 먼 시간대의 참조 등을 통하여 장점과 냉철한 비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신이 디자인하고자하는 대상의 장소적 특성과 이용목적의 구체화를 통하여 심상에 의한 유형학적 대상을 접목시킨다.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탐색이나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많은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단 기초정보가 명확하고 탐구자료와 분석에 익숙해지게 되면 처음에 소비했던 시간은 큰 가치체계로 자리하게 된다.¹⁶⁾ 또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때 그 바탕을

14)Karl Chr, Heuser, 실내건축 공간계획, 이상권 역, 문운당, 1992, p.38

15)ibid, p.40

16)Geoffrey Broadbent, Design in Architecture(건축디자인 방법론), 유희준

세우기 위한 노력은 건물 유형의 발전에 관한 지식을 조합함으로써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3.2. 형태창출의 과정; 개념적, 시각적 의미부여의 과정

(1) 3단계 -강화된 디자인 언어를 얻기 위한 목표설정의 과정: 유형의 분석과정

유형학적 대상으로 선택된 것에 대하여 디자인요소로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념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디자인 대상으로 선택한 구성요소들을 적절하게 분할하고 각각의 명칭이나 특성을 언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구성요소들의 속성과 관계성들도 명칭을 부여하여 표준적 체계를 마련한다. 유형 하나에 대한 독립적 체계로서의 언급과 전체와의 통사적 의미체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따로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형이 분명하게 파악되며 관계성에 의한 체계화가 이루어 졌을 때 전달이 가능해 진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서 시대적 지역적 유형의 원형을 인식하게 되며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의 체계화된 유형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최초의 유형으로서 원형의 추출기준을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 (원형적인 것 the archetypal), 문화 내에서 공유된 것 (문화적인 것 the cultural), 우리 기억의 산물 (개인적인 것 the personal)등 이며 반드시 형상적인 개념만을 파악하고 명명하는 것이 아닌 비 형상적인 축의 개념이나 규칙성을 언어로 기술하고 그 전체적 특성을 개념화한다. 디자인 대상으로 선택한 유형의 규범을 언급하고, 배후의 시대적 배경이나 지역적 특성, 풍토적 특성 등을 살펴 역사를 해독함으로써 디자인 요소의 내재적 원리를 추출해낸다. 이와 같은 과정은 1단계 일정 유형의 정리, 2단계 유형간의 관계 설정, 3단계 내적 질서와 원리의 발견이라는 순차적 과정을 갖음으로서 유형이 단순히 모방적 대상이 아닌 본질적 원리를 추출해 가는 작업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2) 4단계 -시각적 구성요소(ingredients)와 속성(attributes)을 얻기 위한 과정; 시각적 유형의 추출

앞서 파악한 선택된 유형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정리된 언어적 내용은 다시 시각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 언어는 복잡한 재현체계로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기본적인 정서구조가 지적으로 일관된 체계 안에서 구성되듯이 건축과 같은 조형의 재현체계도 주어진 재현 체계의 틀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상 인식의 과정에서 디자인 요소의 추출을 위하여 3단계에서 파악한 유형의 대상들을 비례의 변화나 스케일의 변형을 주지 않은 상태대로 스케치한다. 외형(configuration), 윤곽선(contour), 형상(shape), 치수(size)등 재료에 관계없이 기하학적 형태로부터 자유로운 형태까지 모든 특징적 형상들을 분류하여 폭넓은 시각적 어휘를 형성하게 하여야 하며, 고품체와 공간과의 관계, 회화의 질감적 성질, 형상과 색상의 중요성과 위계성, 음영과 색조의 점진적 변화, 시각적 축의 형성 원리, 디자인

요소의 전개패턴, 그룹화된 형상들의 파악 등과 같은 외향적 구성원리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불명확하지만 깊게 잠재되어 있는 내향적 디자인의 원리와 여기서 드러난 디자인 요소로서 추출된 것들은 단편(fragment)의 개념으로서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요소(element)로서 작용하게 되며 일련의 스케치나 모델들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도록 한다.¹⁷⁾

3.3. 형태 변형의 과정; 구체적 의미의 제정립의 과정

(1) 5단계 -디자이너의 창조적 상상력과 현시대적 재해석을 통한 변형의 과정 ;유형의 연속성 부여

형상해석의 단계로서 4단계에서 추출한 유형학적 요소들을 선택, 조합하여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각적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스케치한다. 즉 추상화, 환원, 단순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이미지, 기억, 역사적 연속성을 상기시켜 이를 스케치한다. 또한 단편적 디자인 요소들을 이끌어 내어서 반복하거나 풀라주하는 방식으로 상상적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각각의 관계적 의미를 이끌어 내면서 전체 형태에 새롭게 부합 될 수 있도록 한다. 새롭게 부합되어 창조된 디자인 요소는 단편(fragment)에서 감지된 디자인적 특성을 초월하여 또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내게되는데, 이와 같은 변형은 일종의 복잡하고 포괄적인 행위로서 과거의 시각적, 형태적 단점을 극복하는 것에 의미를 갖으며 변형으로 나타난 형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변형을 위한 전략적 방법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ㄱ. 제한 요소들(외적 제한, 내적 제한, 미적 제한)에 대한 단계적 적용과정을 통한 형태의 발전적 전개

ㄴ. 채용:적용가능성과 타당성에 관한 해석을 계속 연구하면서 선택
ㄷ. 해체 또는 분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분들을 결합하고 다룰 구조적, 구성적 전략아래 새로운 전체와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위해 전체를 부분으로 나눔.¹⁸⁾

변형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는 규모(scale)에 관계된 것으로 어떤 구체적인 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형태의 가감 행위가 새로운 크기에 정확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히 비례적으로만 처리될 경우, 애초에 의도했던 형태의 규모를 상실하게 된다.¹⁹⁾ 따라서 실제로 변형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규모의 문제는 크기와 구조, 그리고 구조에 알맞은 해결책들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해결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구성된 부분들에 적합한 변형이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의하여 처리된 변형은 알팍한 지식과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그 동안 진행시켰던 절차적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과거의 시각적 형태적 단점을 극복할 때 의미를

의 공역, 기문당, 1982, p.38

17)안토니 c. 안토니아데스, 건축시학, 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1994, p.73

18)ibid, p.64

19)ibid, p.73

가지게 된다.

3.4. 형태 적용의 과정; 디자인대상과 디자인 추출요소의 접목

(1) 6단계 -기능적 관점에서 심미적 디자인 요소의 적합성 판단의 과정

실내디자인에서 디자인 개념이나 그 표현 형식에 치우쳐 간과하기 쉬운 기능상의 필수 조건에 디자인 요소들이 잘 부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공간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분히 구성되어있는가를 검토한다. 또한 평면구성과 입면, 그 밖의 기타 디자인 해결요소는 디자인 요소(단편적 유형)들의 조합과 연속을 통하여 덧붙임, 병렬, 첨가 등의 방법으로 재구성되며 기능성, 합리성, 과학성에 의하여 제한 받고 변화하면서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²⁰⁾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디자인된 결과물들은 과연 충실하게 공간의 구성방식(space planning)과 디자인 요소로 선택했던 요소들이 내적 구조와 일치된 개념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척도의 엄수와 공간 이용에 있어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세부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현대적 시공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추출되었는지를 수정,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로 새롭게 형성된 유형은 하나의 새로운 그룹이나 개념적 특성을 가지며, 이는 고정된 틀이 아닌 다른 차원의 형태와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틀로서 작용한다. 이는 부분적 특성을 나타내었던 디자인적 요소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형의 개념에서 또다른 속성을 가진 유형이 됨을 의미한다.

(2) 7단계 -마감재료, 질감, 색채의 결정과정

유형의 특징적인 형태는 구조의 방법 및 어느 한 시대에 사용된 재료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구성된다. 그리고 하나의 역사적 시대에서 다른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마감재료의 선택과 질감, 색채의 선택에 있어서 유형학적 요소들의 형태적 변형에 일치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본질적 속성(attribute; 한 구성요소의 근본적인 특징)이 잘 부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하나의 명확한 소재기준은 전체적인 개념이나 전체적인 묘사와 질적 수준에 상응하게 되는데, 이는 잘 선택되었던 모든 소재의 가치가 전체적인 대상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심리적, 기술적, 구조적인 필요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²¹⁾ 또한 색은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닌 눈에 의해 감지되는 질(quality)로서²²⁾ 일상적으로 인지되고 경험되는 인간의 세계를 명확히 압축시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요소이며, 색과 질감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상태(mode)에 따라 전통성과 역사성에서부터 하이테크한 느낌까지 자유롭게 구사된다. 또한 많은 경우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만을 크게 생각하여 기본적인 재료와 디테일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

향이고 재료를 다루는 방법이나 디테일 처리에 미숙함을 나타낸다. 재료의 적절한 사용은 장기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프로젝트와 단명하는 프로젝트를 구분시켜주는 요인이 되게 한다.²³⁾ 그림으로써, 유형적 사고는 특별한 재료와 표현법, 장식적 요소, 디테일의 통합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디자이너는 색, 질감, 디테일의 조립방법, 재료의 성격 파악, 비용 등에 이르기까지를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3) 8단계 -Feed back의 과정(평가단계): 문제점 지각(evaluating solutions)→수정(revision)→적용(application)

최종 결과물의 질은 디자이너가 처리하는 실질적 지식의 접근방법과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이너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사용되는 지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이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의 양과 질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며 유형학적 사고 체계로 접근되어지는 과정에서도 같은 영향을 주게된다. 또한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으로, 토론과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최선안의 결정이었던 지를 평가해야 하며 디자인하고자 하는 실내공간의 전체적 특성에서부터 부분적인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작용하였던 요소들이 부분과 전체, 과거와 현재가 양립하면서 불일치 없이 구성되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유형학적 요소들은 피드백(feedback)의 과정을 통하여 논리적이고 규칙적으로 적용되었는지가 검토되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질서(order)를 부여하고 일관성(consistent)을 가지도록 구성해야 한다.

4. 결론

실내디자인의 디자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요구받게 되는 것이 있다면, 창조적인 디자인 요소의 개발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잘 부합시킬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방법적 사고체계 역시 창조적 디자인 과정이다. 특히 실내디자인은 건축과 맞물려 시대적 문화가치를 대변해 주는 양식의 창출이라는 중요한 문화사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방법론의 사용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은 새롭고 발전적인 미래의 생활상의 제시와 어떤 지역적, 역사적 관점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계승되어 왔는지를 익혀야 하고, 바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을 진행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유형학적 사고체계에 의한 디자인 과정은 그 소재적 가치가 현대에 주는 의미와 배경의 고찰방법을 언어적 기술로서 분석해야 하며, 언어적 분석을 기반으로 시각적 언어를 재 구성하여 디자인 요소를 추출해야 한다. 이와같은 유형학적 대상에 대한 근원적인 원리의 파악은 유형학적 사고체계의 1차적 단계로서 여기에서 파악된 원리가 전체에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념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차적 단계는 형태창출의 과정으로서 새로운

20)Sam F Miller, Design Process, 김용규 역, 도서출판 창비, 1997, p.10

21)Karl Chr, Heuser, 실내건축 공간계획, 이상권 역, 문운당, 1992, p.20

22)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82, p.184

23)안토니 C. 안토니아데스, 건축시학, 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1994, p.214

<표 3> 유형학적 사고체계로서의 실내디자인 과정

프로그래밍 과정	디자인단계		평가단계
개념정의 과정: 디자인 목표의 설정	형태창출의 과정: 개념적 시각적 의미 부여의 과정	형태변형의 과정: 구체적 의미의 재 정립의 과정	형태적용의 과정: 유형학적 대상과 디자인 대상의 접목의 과정
설계대상의 분석과 파악 - 문제정의 - 목표체계의 확립 - 요구조건의 조사 및 운영방안	목표설정 과정: 유형의 분석과정 - 개념화과정, - 디자인대상의 구성요소를 언어로 기록 - 유형의 원형인식-체계화된 원형 추출-개념화 - 유형의 정리와 관계설정 - 내적질서와 원리의 발견	디자이너의 창조적 상상력과 변형의 과정: 유형의 연속성 부여 - 시각적 기술 - 시각적 의미부여 스케치 - 상상적 이미지의 재구성 - 단편의 추출-변형	가능성 및 기타 제한요소들에 의한 심미적 요소의 적합성 판단의 과정 - 기능상의 필수조건과 디자인 요소의 부합검토 - 인간척도, 세부디테일의 수정, 검토 - 시공방법의 검토
유형학적 사례의 선택; - 유형학적 사례의 분석 - 디자인요소의 추출을 위한 언어적, 시각적 복원 - 장소의 특성, 이용목적의 구체화 - 유형학적 대상의 접목	시각적 구성요소와 속성: 시각적 유형의 추출 - 정리된 언어의 시각적 재현-파악된 유형의 스케치-시각적 어휘형성		마감재료, 질감, 색채의 결정과정; - 유형학적 요소들의 형태변형에 일치시킬수 있는 선택 - 본질적 속성과의 일치성 판단
분석적 단계(발산)	창의적 단계(변형)	실행적 단계(수렴)	체크리스트의 작성/ 평가
디자이너의 경험적 역량 및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과 디자인 역량			

시각적 유형을 추출해야 하며 단편적 유형의 추출과 상관관계의 파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차적 단계는 형태 변형의 과정으로서 디자이너의 창조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추출된 유형의 요소들을 해체와 조합, 타당성등을 기본으로하여 과거의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연속성을 부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간의 기능적 특성과 요구조건에 잘 부합될수 있도록 구성하고, 단계적 모델을 작성해봄으로서 새롭게 형성된 유형이 잘구성되어 나타났는지를 검토해야한다. 또한 디자인적 측면의 검토와 함께 물리적, 기능적 제한요소들이 유형학적 요소와 잘 접목되었는지는 요구조건이 반영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과거의 유형적 대상이 현시대적 재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잘 부합되어졌는지를 검토하고 각 디자인 단계마다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가져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마감재료에 따른 색채, 질감, 디테일 등이 유형학적 대상과 내부공간의 형태가 심미적, 기능적으로 일치되어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해야하며 시공방법과 공사비용등에 이르기까지 유형적 대상의 구현이 합리적으로 진행될수 있는가를 측정해야한다.

실내디자인이 문화사적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되며 진보할수 있다는 관점하에, 하나의 이론을 재해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실내디자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전통적인 것이든 유형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든 이론적 사고체계에 따라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은 하나의 대상을 디자인하기 전에 거쳐 나가야 할 중요한 절차적 이론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실내디자이너가 유형학적 사고체계에 따른 개념적 방법론을 개념적으로 정립시켜보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 적용의 과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미진사, 1997
2.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82
3. 안토니 c. 안토니아테스, 건축시학, 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1994
4. 어나스트 버튼, 'Element of architectural design(건축디자인 요소), 주승범 역, 1996, 도서출판 국제
5. 윌리엄 미첼, The Logic of Architecture(건축의 형태언어), 김경준, 남승우 공역, 도서출판 국제, 1993
6. Giovanni Franco Fonatt, Elementare Gestaltungsprinzipien in der Architektur (건축의 기본조형 원리), 박형섭 역, 세진사 1990
7. Geoffrey Broadbent, Design in Architecture(건축디자인 방법론), 유희준의 공역, 기문당, 1982
8. J. M. 말러, F. 보드바르카, Interior Dimension (인테리어 디멘션), 박영순, 이현수 역, 디자인 하우스, 1996
9. John Lang, 건축이론의 창조, 조희철, 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1991
10. Karl Chr, Heuser, 실내건축 공간계획, 이상권 역, 문운당, 1992
11. Peter G Rowe, Design Thinking, MIT Press, 1987
12. Sam F. Miller, Design Process, 김용규 역, 도서출판 창미, 1997
13. Stanley Abercrombie, A Philosophy of Interior Design(실내디자인 미학), 한영호 역, 도서출판 국제, 1996
1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G and C Merriam Co, 1966
15. 구분덕, 건축디자인 방법론을 통해본 형태도출의 과정 및 관계기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89
16. 김성호, 패러다임에 의한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7. 정태용, 현대건축에서의 유형개념 및 유형학적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
18. 이석희, 유럽 신허리주의 건축의 유형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87
19. 이희원,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의 특징과 현대건축에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

<접수 : 1998. 8. 7>